

이동진 진도군수, 읍면 방문·민생현장 탐방 시작

직원들과 간담회 통해 발전방향·건의사항 경청

경제적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방문 애로사항 청취

이동진 진도군수가 새해를 맞아 읍·면의 주요 사업과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민생 현장 탐방'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지산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방문,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정 발전방안,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고충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주요 사업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전 군민들에게 1인당 진도아

리랑상품권 10만원씩 지급중인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임회면 십일시간~지산면 인지리 명품가로수길, 하고야리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살피기 위해 취

약 계층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마을 주민들은 "군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취약계층을 방문, 안부 살피기와 격려를 해주는 등 군민을 꼼꼼히 챙겨주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읍면 방문이 끝나면 마을주민, 사회단체를 직접 찾아가 대화하는 등 소그룹 소통을 강화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정의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현장 탐방은 진도읍(2월 22일), 군내면(2월 23일), 고군면(2월



26일), 의신면(3월 2일), 임회면(3월 4일), 조도면(3월 5일) 등 읍면을 방문, 현장 소통 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대기환경 개선 추진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등

완도군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5억 2천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매년 저감 장치(DPF) 장착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완도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매년 저감 장치 미개설 및 장착 불가,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1t LPG 화물차 신차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경기 일원,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전남권은 올 11월 초 시행할 예정으로 적발 시 1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는 환경부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등기우편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전통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장흥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와 지방세를 올해에도 한시적 요율 적용을 통해 감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요율 적용은 기존 임대료 책정 요율을 조정하여 기존 임대료에서 50%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통시장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유재산 임대료 184백만 원과 소상공인 및 중국 수출업체 등에 대한 지방세 6백여만 원을 감면(징수유예포함)해 주었다.

또한, 퇴비 살포기 등 농기계 임대료도 지난해 1,215건 3천4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올해 6월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며 "어려운 시국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안전한 노인일자리, 함께 만들어요”

강진 군동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직무 및 안전 교육



강진군 군동면(면장 강춘혁)은 지난 16일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과 문화재 환경정비사업 참여자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장

근무에 앞서 사업 안내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공유하여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무교육으로 노인일자리 근로 조건 및 활동비 지급기준, 부정수급 사례, 작업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안전교육은 사업 참여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사례별 대처 방안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참여 참여자들의 깊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강진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도 함께 안내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과 소득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군동면 노인일자리 사업규모는 경로당 급식, 회계도우미 등 총 7개 사업(공익형) 182명으로부터 본격적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

당초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업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사업 시작이 지연되면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

강춘혁 군동면장은 "작년보다 노인일자리 대상자가 늘어나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한 일자리 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40~50대 조기퇴직자 등 중장년 취업시 일자리장려금 지원

기업에 최대 500만원·취업자에 최대 300만원

해남군은 관내 40~50대 조기퇴직자, 은퇴자 등 취업지원을 위한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취업 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인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 중장년이다. 중장년이 관내 소재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기업에 고용유지금으로 10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장년 취업자에게도 급여 외에 취업장려금으로 10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

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최소한 2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사랑의집, 사랑의집주야간보호센터, (유)창문나라, ㈜일강레미콘 4개 기업으로 요양보호사, 생산직, 사무직, 대형차량 운전기사 등 총 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오는 26일까지 해남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을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